



3일 오후 인천문학경기장에서 열린 민주당 2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민주당 신임대표에 당선된 손학규 후보가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학규 화려한 복귀

민주당 새 대표 선출...정동영·정세균 2·3위

이인영·천정배·박주선·조배숙 최고위원에

대선을 2년여 앞둔 민주당은 이끌어갈 신임 대표에 손학규 후보가 당선됐다.
(관련기사 3·4면)

손 후보는 3일 오후 인천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2차 전당대회에서 1만1904표(21.37%)를 얻어 민주당 새 대표로 선출됐다.

2위는 정동영 후보(1만776표), 3위는 정세균 후보(1만256표)가 차지했으며 이들 외에도 이인영(6453표), 천정배(5598표), 박주선(5441표) 후보가 최고의원으로 선출됐고 조배숙 후보(1216표)는 최하위에 그쳤으나 여성 배려 조항에 따라 지명직 최고의원으로 지도부에 진출하게 됐다.

당 대표 선출은 대의원 투표와 지난 1일부터 이를 동안 이뤄진 당원 여론조사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대의원 투표 70%, 당원 여론조사는 30%가 각각 반영됐다. 이날 대의원대회에는 전체 대의원 1만2195명 중 1만145명(83.2%)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당원 여론조사에는 표본수 3만5199명 중 1만7202명(50.3%)이 응답했다.

손 대표는 대의원 현장 투표에서 3827표, 사전 여론조사에서 9643표를 얻어 모두 선두를 차지했다.

나머지 후보는 70%가 반영되는 대의원 투표에서 ▲정세균(3749표) ▲정동영(3289표) ▲이인영(2963표) ▲박주선(2303표) ▲천정배(1962표) ▲최재성(1761표) ▲조배숙(436표) 순으로 표를 받았고, 30%가 반영되는 당원 여론조사에서는 ▲정동영(9442표) ▲정세균(6468표) ▲천정배(3873표) ▲박주선(2152표) ▲이인영(1609표) ▲최재성(1415표) ▲조배숙(802표) 순으로 득표했다.

손 대표가 2년여의 춘천 침거와 조직 열세라는 불리함을 딛고 당심을 얻은 것은 민주당원들의 수권 의지가 반영된 때문으로 보인다. 당원들이 대권후보로 유력한 인사를 당 대표로 내세우려 했다는 것이다. 일부 후보들은 대권으로 가는 짐짓다리 지도부가 필요하다며 지지를 호소했지만 선거운동 기간 내내 ‘정권 탈환의 유일한 희망’이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손 대표를 이기지 못했다.

이로써 손 대표는 오는 2012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으며 민주당을 수권정당으로 만들어야 할 무거운 책무를 안게 됐다.

손 대표도 이날 수락연설을 통해 “민주당은 오늘 승리의 의지를 국민에게 선언했다. 국민을 무시한 이명박 정권에 선전포고를 했다”며 “이제 그 승리의 책임을 맡긴 여러분의 명을 겸허히, 고맙게 받겠다. 역사와 국민 앞에 대표 지명을 수락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신의 안일을 버리고 이 순간부터 온몸을 바쳐 혁신의 힘을 다해 민주·진보 세력의 승리 역사를 써나가겠다”며 “국민의 열망을 모아 정권 교체를 이뤄내기 위해 호랑이 민주당을 만들고 능력있는, 실력 있는,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 대부분이 지도부에 들어가는 집단지도 체제 하에서 손 대표가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돼 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강령 ‘중도개혁’ 삭제

15년만에 노선 수정 ‘진보·복지’ 추구

민주당은 3일 전당대회에서 당의 노선을 기준의 중도개혁주의에서 ‘중 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 수정했다.

민주당이 강령에서 ‘중도개혁’이라 는 용어를 삭제한 것은 지난 1995년 전신인 ‘새정치국민회의’ 창당 당시 중도개혁 노선을 결정한 지 15년만의 일이다.

민주당은 또한, 전문과 31개 강령

으로 구성된 개정안에서 민주, 자유, 평화, 환경, 복지를 당의 5대 가치로 정하고 ‘보편적 복지’라는 개념을 명문화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공정 사회’ 드라이브에 대응해 당의 진보적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당 운영의 핵심 의제가 당원의 권리회복과 진보 노선에 초점을 맞춰지면서 당의 색채가 더욱 선명해졌다.

여전부 성과 계승 ▲시장경제를 보완하는 정부의 능동적 역할 강화 ▲부상교육 확대 ▲실질적 무상의료 혁실효화 ▲보편적 복지국가 실현 등을 정책 목표로 설정했다.

특히, 당헌 개정안에 정동영 상임 고문의 주장을 수용해 ‘민주당의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을 넣었다.

이로써 당 운영의 핵심 의제가 당원의 권리회복과 진보 노선에 초점을 맞춰지면서 당의 색채가 더욱 선명해졌다.

지는 것은 물론 당원들에게 국회의원 공천과 지역위원회 운영, 당의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2012년 총선, 대선의 승리를 위해 민주진영 통합에 적극 나서겠다는 민주당 선언을 발표했다.

박지원 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오 “늘 새로운 지도부가 탄생하고 당원 등이 개정되면서 민주당은 새로운 계기를 맞게됐다”며 “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를 통해 차기 대선에서 정권차장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임동우기자 tuim@kwangju.co.kr



삼국지 중원의 땅 중국의 古都 하남성으로...
세계 유네스코가 지정한 찬란한 문화유산의 총 집합체

10월 16일~11월 13일 (매주 수, 토) 단, 9회 한정

| 구 분 | 상 품 명 | 요 일 | 출 발 날 짜 | 상 품 가(원) |
|-----|--------------------------------------|-----|----------------------------|----------|
| 관 광 | 소림사 / 운대산(용문석굴) 4일 | 수 | 10/20, 27 11/3, 10일 | 699,000 |
| | 소림사 / 태항산(용문석굴) 4일 | | | 799,000 |
| | 소림사 / 서안 진사왕봉마용 (용문석굴) 4일 | | | 859,000 |
| | 소림사 / 운대산 / 개봉포정천 (용문석굴) 5일 | 토 | 10/16, 23, 30 11/6, 13일 | 749,000 |
| | 소림사 / 서안 진사왕봉마용 / 8구비의 화정지 (용문석굴) 5일 | | | 899,000 |
| 트레킹 | 승산(송림사) / 운대산(용문석굴) 트래킹 4일 | 수 | 10/20, 27 11/3, 10일 | 799,000 |
| | 그랜드 캐년 태항산 대협곡 트래킹 4일 | | | 799,000 |
| | 화산 / 승산 / 운대산 종주 트래킹 5일 | 토 | 10/16, 23, 30 11/6, 13일 | 899,000 |
| | 태항산 / 운대산 종주 트래킹 5일 | | | 899,000 |

New 실속상품 출시

| 구 분 | 상 품 명 | 요 일 | 출 발 날 짜 | 상 품 가(원) |
|-----|----------------------------|-----|----------------------------|----------|
| 관 광 | 소림사 / 운대산(용문석굴) 4일 | 수 | 10/20, 27 11/3, 10일 | 549,000 |
| | 소림사 / 태항산(용문석굴) 4일 | | | 699,000 |
| | 소림사 / 서안 진사왕봉마용 (용문석굴) 4일 | | | 759,000 |
| 트레킹 | 승산(송림사) / 운대산(용문석굴) 트래킹 4일 | 수 | 10/20, 27 11/3, 10일 | 699,000 |
| | 태항산 / 운대산 / 승산 트래킹 5일 | 토 | 10/16, 23, 30 11/6, 13일 | 799,000 |

광주 MBC 문화탐방 전세기 사무실 [문의전화] 062)226-6070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양국정부인가조건)
◎ 랜드뱅크여행사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42-10

알 릴

‘월요광장’ 필진 바뀝니다

광주일보 대표칼럼인 ‘월요광장’의 필진이 오늘부터 새로운 필진으로 모였습니다. 새 필진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를 전문지식과 해인으로 깊이 있게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바랍니다.



◇이재민 순천향대 교육대학원 교수
▲조선대 법대 ▲우즈벡세계언어대학교 교육학 명예박사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위원회 위원 ▲국제교육진흥원 기획관리부장 ▲광주시 교육청 기획관리국장·부교육감

◇고현석 경북미술추진위원회 위원장
▲서울대 법대 ▲중앙대 경제학 박사 ▲농협중앙회 조사부장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위원 ▲교성군수 ▲군형사회를 여는 모임 공동대표
◇박상호 조선대 미대 교수
▲조선대 미대 ▲원광대 건축공학 박사 ▲아시아 미술문화학회 감사 ▲광주기독교미술인협회 회장 ▲광주시전·전남도전 초대작가
◇이정애 전남대 의대 교수
▲전남대 의대 ▲원광대 도서관장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위원 ▲대한보건행정학회 회장

光州日報社

알 릴

전북 취재본부 재가동

전통과 권위의 광주일보가 이 달부터 전북 취재본부를 재가동 합니다.



광주·전남과 형제 광역단체인 전북은 역사적으로 뿌리가 같은 아니라 정치·문화·경제적으로 광주·전남과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지역입니다. 본부는 전주시·의산시·정읍시·남원시·고창군·순창군 등 6개 시군 지사 및 취재기자로 구성되며 향후 전북 전지역에 취재망을 확대하게 됩니다. 새롭게 재가동되는 전북 취재원을 바랍니다.

光州日報社